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참여 인식에 관한 연구

- 유권자 효능감을 중심으로 -

이명행\*

## • 목 차 •

I. 서론	2. 설문의 구성 및 내용
II. 투표참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	3. 조사대상 집단 및 표본 선정
1.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관한 이론	4. 자료의 분석방법
2. 유권자 효능감	IV. 유권자효능감 등에 대한 실증분석
3. 투표참여 관련 효능감에 대한 선행 연구	1. 설문대상자의 사회경제학적 특성
III. 유권자 인식조사를 위한 조사설계	2. 유권자 효능감의 신뢰도 분석
1. 변수의 선정	3. 유권자의 인식차이 분석
	V. 결 론

## I. 서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 「헌법」 제1조 2항에서 명확히 하고 있고 선거 제도가 민주주의의 제도적 필요조건이라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투표참여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를 선언하는 모든 국가들은 제도적 차원에서 선거제도를 완성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공직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독려하려는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투표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유권자가 투표를 할 것이냐 또는 기권할 것인가 하는 것과 투표할 때 어떠한 준거를 가지고 참여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서

\* 부산연세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4급), 주요경력: 선거연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당국) 근무, 행정학 박사(건국대학교 대학원)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와 후자를 모두 포함한 의미로서 투표참여로 규정하고 연구를 진행한다.

투표참여와 관련하여 1990년대 이후 유권자들의 투표욕구를 연구하는 기존의 주류적 연구주체의 핵심은 합리적 투표행위이론에 근거로 유권자들의 개인성향, 정치성향, 선거제도, 그리고 사회문화요인들이 유권자들의 투표욕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근거로 선거참여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정비하여 정당의 활동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선거에 대한 다양한 가치를 알리고,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때 최대한의 편의성을 제공하려는 초기 노력의 결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꾸준한 투표율은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각 나라가 투입하는 막대한 행정·재정적 자원대비 선진국들의 평균 투표율 50% 정도에 그치는 바 이 같은 수준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회의적 논의가 있으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지 이제 20여년이 지난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정치적 기반이 형성된 선진국들에 비해 50% 전후의 낮은 투표율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선거행정의 효율성을 넘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설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선거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유권자의 정치 효능감이 투표참여 욕구를 강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유권자효능감에 대한 인식과 투표참여 제고를 위한 정책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탐색적으로 고찰하여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6월 2일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한국 역사상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교육의원 등 총 8개를 동시에 실시한 선거로서 어떤 대표자들이 선출되는가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지역사회의 중요한 정책의제 설정과 함께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택기회라 할 수 있다.

1987년 민주화이후 한국의 역대 선거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투표율의 지속적인 하락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지난 2007년 대선의 투표율은 63.0%로서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89.2%에 비해 무려 26.2% 포인트 하락하였고 2004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46.1%로서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당시의 투표율 75.8%에 비해 29.7% 포인트가 하락한 가운데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2010년 6월 2일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06년 제4회 선거의 투표율 51.6%보다 2.9%포인트가 높은 54.5%를 나타내었으나 1995년에 실

시되었던 제1회 동시지방선거 보다는 13.9% 포인트가 하락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국은 안정적인 선거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선거관리과정의 공정성 확보 등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투표참여 측면은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 저조, 정치적 불신 등으로 인한 투표참여율의 하락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하여 실질적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sup>1)</sup>

이러한 공직선거의 투표율 하락추세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서구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공통적인 현상이나, 투표율의 하락 비율이 서구 유럽의 경우 7~8%인 반면에 한국의 경우 25%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지난 2010년 5월 9일 민주주의와 선거 지원을 위한 유엔 공인 국제기구(International IDEA)가 발표한 자료의 내용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의 최근 10년간 투표율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투표율은 평균 56.9%로서 26위에 그치고 있다. 이들 회원국의 평균 투표율은 71.4%로서 한국보다 14.5%나 높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94.8%를 기록한 호주였으며, 그 뒤로 룩셈부르크 91.7%, 벨기에 91.4%, 덴마크 86.1% 순이었다. 또 프랑스 71.1%, 미국 68.9%, 일본 62.6% 등도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한국보다는 모두 높은 투표율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된 선진국들이 한국보다 높은 선거 참여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sup>2)</sup>

기존의 투표참여와 관련한 효능감의 선행연구는 제도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앨버트 반두라(Albert Bandura 1977)의 학습이론을 토대로 효능감이 강한 개개인에게 참여의 가치를 강조하거나 이끌어낼 수 있으며,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할 때 정치적 과정의 하나인 투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 분명하고 그럼으로써 유권자들은 지방정부의 합법성에 더 큰 기여를 하는 환류 현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착안하였다.

앨버트 반두라(Albert Bandura)는 학습이론을 기반으로 한 자기효능감을 정치에 대한 심리적 해석을 통해 정치효능감과 투표효능감에 관한 연구로 발전해 가는 점에 착안하여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방자치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개개인의 확신”으로서 유권자 효능감의 영향으로 투표참여의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험적으로 검증하였으나 유권자의 인식차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다음과 같이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1) 권경복. “한국민주주의 지수 세계20위... 日 제쳐”. 조선일보 2010.12.20.일자 기사.

2) 배연국. “한국 투표율 OECD 최하위권”. 세계일보 2010. 5. 9.일자 기사.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중 무작위로 설문한 1,240명의 자료이며, 공간적 범위는 선거가 실시된 전 지역 즉, 제주도를 포함한 16개 시·도지역의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내용적 범위는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관한 선행연구와 형성된 이론에 대한 고찰과 함께 유권자가 효능감에 대한 인식을 탐색적으로 검증하고 투표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선호도 등을 분석하여 제시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투표참여 영향요인과 관련한 국내·외의 학위논문 및 학술지, 단행본, 선관위에서 발행한 선거총람과 유권자 의식조사자료, 투표율 분석자료, 각종 선거관련 연구보고서 등과 같은 문헌자료 중에 유권자 효능감과 관련된 문헌자료들을 중점적으로 검토·분석하여 투표참여 영향요인에 대한 설문 중 유권자 효능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의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수집된 통계자료에 대한 신뢰도 검증, 타당도 검사를 수행하고, 집단 간의 유권자 효능감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기보기 위해 T-test, 분산분석을 실시한다.

설문의 구성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한 폐쇄형으로 하되,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등으로 5단계로 나누어 측정하여 질문항목에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에는 최고 5로 하고,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한 설문항목에 대해서는 최저 1로 환산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249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이 조사대상자를 면담 조사하였으며, 설문대상 1,270명중 1,240명이 응답한 설문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제1장에서 이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간략히 설명한 후 제2장에서 투표참여와 유권자 효능감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배경으로 제3장에서 유권자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설계한 후 제4장에서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유권자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한 후 제5장에서 이 논문의 결과를 요약정리 하였다.

## II. 투표참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관한 이론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각종 선거에서 왜 투표에 참여하며 또한 정당이나 후보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에 대한 고찰과 함께 투표참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유권자의 투표참여는 각각의 개별 행동이 전체적인 의사결정과 정책적 판단에 공동으로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 행동양식이라 할 수 있으며, 투표참여와 정치현상의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유권자의 투표참여율 하락이라는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나 동일한 정치현상을 다른 이론적 시각으로 검증하게 되면 기존의 해석과 다른 해석에 이르게 된다.

국내에서의 선거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선거에 대한 법률 및 각종 규정에 관한 것으로서 선출정수, 당선인 결정방식, 기표방식 등에 관한 제도에 관한 연구이고, 둘째는 정당의 후보자공천 결정, 셋째는 선거운동 양상의 변화 및 선거비용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넷째는 유권자의 투표참여 또는 기권과 투표자가 정당(후보자)을 선택하는 요인 등을 찾기 위해 주로 행태적이고 계량적인 연구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서상국 2009, 7).

최근까지의 한국의 투표참여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1960년대 미국의 행태주의를 모방하여 이론을 전개하여 오고 있으며, 그러한 관계로 지금까지 연구되고 있는 이론은 근대화 이론이며, 사회경제적 모형에 의한 유권자의 투표참여 분석을 거쳐 근래에 와서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Downs 합리적 선택 이론에 의해 연구하는 경향도 보이는 등 각종 선거에 관한 연구는 선거시점과 종류별로 다양한 시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이론적 시각의 변화가 원인일 수도 있지만 이론의 종주국인 미국사회의 정치·경제·문화적 변화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유권자는 심리적인 영향에 의하여 투표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사회심리학적 이론과 투표참여를 설명함에 있어 인간의 사회적 행위의 규칙성은 인간행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찾으려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인간관에 착안하여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최고의 목표를 투표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성취하려고 한다는 합리적 선택 이론, 그리고 유권자의 인지능력에 따른 차별성을 인정하는 인지심리학적 이론을 종합한 통합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유권자의 효능감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유권자의 사회경제학적 특성에 의하여 비교한다는 입장으로서 무엇보다도 유권자의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와 관련해서 갖는 태도”라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공직선거의 투표참여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유권자가 투표를 할 것이냐 또는 기권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며, 둘째, 투표할 때 어떠한 준거를 가지고 참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서 이번 연구는 투표참여에 있어서 유권자 효능감이 유권자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별을 나타내고 있는지 분석하게 된다.

특히 유권자가 투표라는 의사를 결정할 때 선거결과에 대한 인식을 예견하고 특정 정당(후보자)을 선택하려는 행동을 보인다는 점에서 결국 투표참여는 정당(후보자) 선택이라는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표참여율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최근까지 선행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대한 어떤 이론적 접근방

법에 의한 연구라 할지라도 국가별로 시대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연구자의 연구목적과 시대상황에 따라 그 이론적 배경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유권자 효능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효능감과 관련한 선행연구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선거제도나 유권자의 성향에 관한 연구가 국가별 또는 선거의 종류별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각 선거를 연구자가 바라보는 이론적 시각에 따라 투표현상에 대한 해석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처럼 유권자의 투표참여 역시 어떤 이론적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까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것은 투표참여에 대한 이론과 정당(후보자)선택의 이론으로 대별되며, 투표참여 이론 중에는 투표자 특성이론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정당(후보자)선택의 이론으로서 사회심리학적 이론·합리적 선택 이론, 인지심리학적 이론·제도(구조)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있는바 이번 연구와 관련이 있는 유권자의 투표참여 이론과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사회심리학적 이론

유권자의 투표참여는 유권자의 성별·연령·학력·소득·이념 등과 같은 집단에 속한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회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유권자의 심리학적 요인에 따른 변화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이론으로서 정당에 대한 충성심, 개인이 신념과 정보와 같은 내부적 요인에 의하여 설명하는 입장으로서 서구인의 투표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는 심리·문화적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표 1〉 한국과 미국의 투표율과 사회경제학적 특성 비교

구분	미국	한국
성별	성별투표율의 차이가 없음(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높음)	성별투표율의 차이가 없음(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높음)
연령	나이가 들수록 투표율이 높음	나이가 들수록 투표율이 높음
교육	학력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높음	학력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낮음
직업	전문직의 투표율이 높음	전문직의 투표율이 낮고 학생의 투표율이 매우 낮음
수입	수입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높음	수입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약간 높음
기타	백인일수록 투표율이 높음	도시지역의 투표율이 낮음

출처: 장원호, 교육수준이 선거기권에 미치는 영향: 다운즈의 합리적 선택론을 중심으로, 조사연구, 2003. 4(2): 25.

유권자의 집단별 특성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투표율과 사회경제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다음 <표 1>과 같이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 이유를 선거별로 달리 설명하고 있으며, 주로 유권자의 동원투표, 혈연·지연에 의한 투표성향 등의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합리적 선택이론

인간의 사회적 행위의 규칙성은 인간행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찾으려고 하는 다운즈(Downs 1957)에 의해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인간관에 착안하여 투표참여에 있어 유권자 자신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는 이론으로서 다운즈(Downs 1957)의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제시했던 'R=PB-C'라는 투표참여 모형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한 라이커와 오데슈크(Riker and Ordeshook 1968)에 따르면 기존 모형에 시민적 의무감을 추가한 'R=PB-C+D'라는 투표참여 모형을 개발하고 유권자가 투표의 역설(the paradox of voting)을 극복하고 투표에 참여 이유로서 즉, R>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접근방법으로서 투표참여를 설명하고 있다(Riker, William, and Peter Ordeshook. 1998, 23~43).

## 3) 인지심리학적 이론

인지심리학적 이론은 1970년대 이후 대두된 이론으로서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초하지만, 실제적이고 총체적인 점에서 합리적 선택이론이 아니라 절차적 한계가 있는 제한된 합리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즉, 정당에 대한 귀속감같은 심리적 요인이 인간의 기억구조 속에 인지된 후 정치적 태도로 표출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정보처리과정과 정치적 신념체계의 형성과정에 대한 관심을 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심리학적 이론에서는 유권자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 본다는 점에서 유권자를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심리학적 이론과의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 4) 제도(구조)주의 이론

투표참여를 설명함에 있어서 앞에서 설명한 3가지 이론의 경우 인구학적 특성과 정당 일체감에 의한 투표참여, 합리적 선택을 위한 요인으로 투표참여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주장하고 선거의 제도 즉, 전략적 투표와 비례형 선거제도, 혼합형 선거제도를 주장하는 구조(제도)주의 접근 방법이다.

## 5) 통합이론

앞에서 설명한 사회심리학적 이론, 합리적 선택 이론, 제도(구조)주의 이론 등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투표참여에 대한 설명에 적용할 수 있지만,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동원·도저촌고 등의 투표형태의 한국의 공직선거에 있어 투표참여 영향요인을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이유로 여러 이론의 특성 중 한국적 투표참여에 적합한 요인들의 총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실증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통합이론 모형에 따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박이석 2005; 김재전 2008; 이명행 2011).

## 2. 유권자 효능감

유권자 효능감은 심리학의 자아효능감이란 개념으로부터 도출하여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으로 검증되고 있으며 그 구성은 특정한 일에 대한 자신감, 자기조절선호도, 과제난이도 등 3가지로 구성된다는 점을 선행연구 등을 통해 알 수 있는바, 유권자 효능감의 증진을 위해서는 주로 4가지의 요소를 들고 있다.

첫째, 투표참여 경험으로서 유권자가 과거에 겪었던 특정 투표참여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능력에 대한 평가로서 이전에 성공에 대한 기억을 현재 과정에 대한 자신감을 더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대리경험으로서 다른 유권자들의 과업 수행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과업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사회적 설득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다른 이들의 조언과 반응이 투표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유권자별로 생리적이고 감정적인 상태에 따라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까지 공직선거에 있어 유권자의 투표참여 영향요인 중 유권자 효능감과 관련된 요인을 제2장에서 설명한 인지심리학적 이론과 사회인지이론을 한국의 공직선거에서 적용하여 연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유권자 효능감의 형성에 있어서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투표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며, 유권자의 정당(후보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한국 공직선거를 대상으로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박찬욱, 1993; 이남영, 2002; 이찬희, 2003; 안병만, 2005; 조재목, 2005; 조성대, 2006; 이재철, 2007; 김왕식, 2008; 이명행, 2011).

본 연구의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투표율에 대해 유권자의 투



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결과 유권자로 하여금 민주사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신념과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리고 환경과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같은 심리적 자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유권자 효능감을 제도적인 측면에 대한 영향력으로 측정하거나 단일문항적 접근방법을 통해 유권자 효능감을 묻는 연구가 진행되어 정확한 유권자 효능감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유권자의 투표참여 영향요인에 대한 설명력을 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8개 선거를 한꺼번에 실시했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권자 효능감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유권자 효능감이란 유권자들이 정치적 주체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스스로 인지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시키거나 자신이 의도한 대로 정치체제의 반응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는 믿음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는 정치나 정치문화에 대한 이해, 정치적인 일이나 정치과정에 대한 영향, 정치적인 참여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행위가 실제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념으로서 효능감이 투표참여와 정비례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높은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고, 효능감이 직무관련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입증된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다.

유권자 효능감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앨버트 반두라(Albert Bandura 1986)의 연구를 토대로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방자치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개개인의 확신”으로 유권자 효능감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즉, 8개의 동시지방선거라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인 동시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신념을 유권자 효능감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유권자 효능감으로 인해 유권자가 공직선거에 있어 투표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고 선거권 행사에 대한 자신감과 투표 또는 기권하려는 생각에 대한 조절능력, 그리고 8개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후보자)을 비교·선택하여 투표해야 하는 과제난이도의 선호정도 등을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통계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자기효능감의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태도, 행동, 궁극적으로 성

과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앨버트 반두라(Albert Bandura 1986)는 자기효능감은 목표설정수준, 노력의 투입정도,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 정도 및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논거들을 중심으로 공직선거에 있어서 유권자 효능감을 정리하면 ① 효과적인 의사전달 방법으로 투표의 필요성 인식, ② 내 한 표의 가치에 대한 기대, ③ 지역 참일꾼의 선택하는 자신감, ④ 투표참여로 지방정치와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0년 6월 2일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최초로 교육감과 교육의원 등의 선거를 포함한 8개 선거로서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은 과거 3회, 4회 지방선거보다 더 높은 가운데 실시되었다는 점을 <표 2>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표 2> 지방선거 시기별 관심수준 추이 분석

구분	3회 1차 지방선거	3회 2차 지방선거	4회 1차 지방선거	4회 2차 지방선거	5회 1차 지방선거	5회 2차 지방선거
관심있음	50.3	60.3	51.2	56.6	54.4	64.4
관심없음	49.7	39.7	47.4	41.5	44.6	34.9
모름/무응답	0.0	0.0	1.3	1.8	1.0	0.7
Total	100	100	99.9	99.9	100	10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3회~제5회 동시지방선거 유권자의식조사 자료 재구성

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64.4%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매우 관심있음 22.1% + 다소 관심있는 편 42.3%) 반면, ‘관심없다’는 응답은 34.9%(전혀 관심없음 5.9% + 별로 관심없는 편 29.0%)로 나타났으며 과거에 치러진 지방선거와 비교해 볼 때,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투표참여라는 결과로 도출되지 못하는 아쉬움은 과거 모든 선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유권자가 투표에 대한 효능감을 갖는 분야에 대한 인식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보면, 과거 지방선거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지역주의가 열어지고 있는가하면,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교육감·교육의원선거를 함께 실시하다 보니 유권자들이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거나 지지하는 후보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는 등 유권자의 효능감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선거로서 유권자의 효능감에 대한 인식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 3. 투표참여 관련 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

민주화 이후 공직선거에 있어 유권자의 투표참여 행태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었으며, 연구를 통해 투표참여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까지 진행되었던 공직선거에서의 투표 효능감 등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박찬욱(1993)은 제14대 국회의원선거를 대상으로 유권자 수준에서 확인된 선거에 대한 관심과 인지능력이 자발적인 투표참여 의사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자신의 한 표가 선거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 정당정치에 대한 신뢰, 아울러 선거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투표참여 의사를 강하게 만든다고 하였다(박찬욱 1993, 172).

이남영(1993)은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일 직후 한국선거학회에서 전국의 표본 총수 1,206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제14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참여와 기권현상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유권자의 참여유형을 긍정적 참여형, 저항적 참여형, 낙관적 방임형, 비관적 포기형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제14대 국회의원선거는 긍정적 참여형이 주도한 체제 유지적 성격의 선거로서 유권자가 정치체제를 비민주적인 시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유권자일수록 기권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투표여부의 주요 결정요인으로는 선거관심, 연령, 투표효능감, 직업, 지지호소, 지역의원 평가를 중요시 하고 여전히 '도저촌고(都底村高)' 현상과 지역주의적 투표에의 동조현상, 동원압력에 의한 투표현상 때문으로 심리적 압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농업이나 단순노동에 종사자들이 투표참여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이남영 1993, 23~47).

이찬희(2003)는 한국 유권자의 기권행태 분석을 통해 인간은 인포메이션의 제한성과 처리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택행위를 하기 위해 추지의 틀을 사용하며 추지의 틀은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정보처리장치로써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한다. 즉, 개인별 선택 결과의 차이는 개인별로 다른 추지의 틀을 사용하여 인지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라 하겠다.

따라서 투표여부는 투표효능감 등에 대한 인지과정의 유형에 따라 결정되며, 정보수준이 높고 추지의 틀 활용 수준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투표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정보수준이 낮고 추지의 틀 활용수준이 낮은 유권자일수록 기권할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이찬희 2002, 64~65).

안병만(2005)은 유권자의 정치적 정향을 개인적 여건, 사회적 변인, 경제적 변인, 심리적 변인에 따라 충성, 순종, 이의, 소외 4단계로 나누고 소외적 정향을 갖는 사람일수록 선거에 대한 관심도와 투표 효능감이 낮고, 선거결과에 대한 영향력, 선거공명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 소외적집단의 특성을 파악하여 축소하거나 비소외적인 건전한 정치 유권자 집단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재목(2005)은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유권자의 세대와 정치심리요인 및 투표행동 간의 인과관계에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총체적인 경로분석 모형을 검증한 결과, 세대는 정치효능감과 국회의원 활동평가, 정부신뢰도와 같은 정치심리요인을 매개로 투표참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세대는 정치효능감을 매개로 분석결과 정치효능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투표참여도가 높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으며 현 정부의 만족도 평가, 현국회의원의 지역구활동 만족도와 평가차원의 회고적 투표경향은 투표참여도와 강한 인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정당지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던 탄핵쟁점, 정치이념, 정당일체감은 투표참여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입증하였다.

특히, 투표참여의 강력한 요인으로는 정치효능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유권자의 학력, 소득변인만이 투표참여도를 판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국정운영에 만족하는 유권자가 국정운영에 만족하지 않는 유권자보다 투표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밝히고 있다.

조성대(2006)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투표참여와 기권에 대한 합리적 선택 이론 수리모형을 통해 연구한 결과 선거근접도와 투표참여간의 관계는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선호 정당에 대한 지지 정도와 두 경합 정당에 대한 선호 차이에 따라 유권자의 투표참여와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유권자에 비해 남성유권자가, 연령이 많은 유권자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투표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당일체감이 강할수록,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만족감이 높고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투표참여에 적극적이며 지지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두 경합 정당으로부터 느끼는 효용의 차이가 클수록 투표장으로 나갈 확률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철(2007)은 지난 2006년도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적 효능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3%가 투표에 참가함으로써 정치과정에서 영향을 가진다는 것을 느낀다고 하고 정치적 효능감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 학력이 낮은 유권자일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은 정치적 효능감을 나타내고, 월평균 가계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의 정치적 효능감이 가장 높았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들보다 정치적 효능감이 높았으며 지역에 따른 정치적 효능감의 분포는 충청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정치적 효능감이 가장 높았고 전라도지역 유권자는 낮았다고 밝히고 있다(이재철 2007, 103).

특히, 김왕식(2008)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연구를 통해 투표참여 요인을 유권자의 설문자료를 통해 Downs의 합리적 선택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투표의 효용성이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점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선거 이외의 효능감 연구에서는 효능감의 높고 낮음에 따라 학습의욕, 리더십, 직무성과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그 영향력이 입증되고 있다.

이남영(2002)는 제16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정치심리요인인 정치효능감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세대는 정치효능감을 통해 투표참여로 간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가설이 입증하고 국회의원 활동만족도나 정부만족도를 매개로 투표참여가 이루어졌으며, 세대간에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 효과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총선 직후 실시된 전국여론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일반 시민들이 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을 어떻게 판단하였으며, 낙천·낙선운동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기권과 투표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을 불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시점에 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은 결과적으로 하양식 공천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불거진 운동이기 때문에 당시 유권자가 공천제도를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생각하였는가 혹은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하였는가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이 2000년 총선 당시 기권과 투표참여에 미친 효과를 조사하였다.

이명행(2011)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유권자의 투표참여 영향요인중 유권자 효능감의 조절효과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시민적의무감, 선거운동관심도, 투표편의성 등에 공감을 나타내는 유권자일수록 투표참여 적극성을 보이며, 그 중 시민적 의무감이 높은 사람은 유권자의 효능감의 조절효과에 반응하여 더욱 투표참여 적극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증명하고 투표참여율 제고를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의 강화, 투표편의성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등 유권자 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 Ⅲ. 유권자 인식조사를 위한 조사설계

#### 1. 변수의 선정

공직선거에 있어서 유권자의 투표참여 인식조사를 위하여 “자신의 투표참여가 정치와 교육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주관적 판단”으로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설문을 통해 인식차이 분석을 위한 유권자 효능감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의 투표참

여율(54.5%)에 대한 인식차이, 그리고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위한 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함께 분석하기 위하여 투표참여를 위한 정책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면밀한 분석을 위하여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포함하였다.

### 1) 유권자의 효능감

먼저 유권자 효능감의 개념을 “자신의 투표참여가 정치와 교육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주관적 판단”으로 정의한 후,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① 의사전달 방법으로서 투표의 효과성, ② 투표결과에 대한 한 표의 영향력, ③ 투표참여로 지역의 바른 일꾼을 선택하는 기회, ④ 투표로 인한 지역정치와 교육의 변화가능성 등 4가지로 조작적 정의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 2) 투표참여 정책에 대한 선호도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대한 효능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투표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가 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투표참여 제고를 위한 여러 정책 중 어떤 정책을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권자의 투표참여 정책에 대한 선호정책을 크게 8가지로 구분하여 투표 의무감 고취를 위한 교육 강화방안, 투표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확대방안 등과 함께 선관위의 적극적인 투표참여 홍보 활동,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회사 등에서 철저한 투표시간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전자투표, 사전투표 등 투표방법 개선, 또한 현재 오후 6시에 마감하고 있는 투표시간의 연장(오후 6시⇒8시)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고 기타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 3) 유권자의 사회경제학적 특성

지금까지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수준 등 유권자마다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투표참여에 차이가 있음이 경험적으로 증명되고 있고 본 연구의 목적에서 밝힌바와 같이 유권자의 집단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유권자별 사회경제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 2.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

설문의 구성은 유권자의 인식과 태도에 따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의 느낌대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권자 효능감은 Likert 5점 척도로 하여 각 항목에 대한 평점은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등 5단계로 나누어 측정값을 부여하였으며, 투표참여에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은 선행연구를 통해 투표의무감 고취를 위한 교육 강화, 투표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확대 등 8가지의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먼저 유권자 효능감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투표참여를 통해 정치와 교육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으로 정의하고 유권자의 투표참여 관련 선행연구 등을 통해 유권자 효능감에 대한 측정을 위해 “투표는 정치인들에게 내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나 한 사람의 참여가 지역의 바른 일꾼을 선택하는데 기여한다.”, “이번 투표로 우리지역의 정치와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다.”로 긍정문 형식으로 설문하고, “투표는 많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나 하나정도 기권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에 대한 인식은 부정문 형식으로 4개의 설문으로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하느냐에 대한 설문으로 ① 투표 의무감 고취를 위한 교육 강화, ② 투표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확대, ③ 선관위의 적극적인 투표참여 홍보 활동, ④ 후보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⑤ 회사 등에서 철저한 투표시간 보장, ⑥ 전자투표, 사전투표 등 투표방법 개선, ⑦ 투표시간 연장(오후 6시⇒8시), ⑧ 기타 등 8가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분석을 위하여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 거주지역(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 출신지역 등을 포함하여 설문하였다.

## 3. 조사대상 집단 및 표본 선정

본 연구에서 공직선거에 있어서 투표참여에 대한 유권자의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2010년 7월 16~31일까지 제주도를 포함한 16개 시·도의 일반유권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각 시·도별 설문대상인원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확정된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지역별과 남·여의 성별 선거인수를 감안하여 층화무작위표본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지방선거시 전국의 시·도별 확정된 선거인수에 비례한 선거인수를 무작위추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서울 256, 부산 88, 대구 60, 인천 64 광주

34, 대전 35, 울산 27, 경기 275, 강원 48, 충북 43, 충남 54, 전북 51, 전남 58, 경북 79, 경남 85, 제주 13명 등에게 총 1,270부를 배부하였다. 이 가운데 97.60%에 해당하는 1,240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무응답의 결측치(missing values)와 입력오류로 인한 이상치(outlier)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였다. 결측치의 처리는 수집된 데이터 중 결측치가 있을 경우라도 평균값으로 환산하지 않고 원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 4. 자료의 분석방법

앞서 살펴본 연구모형의 유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회수된 자료 중 분석에 적절치 않은 응답은 통계처리에서 제외하고 SPSS 15.0을 이용하여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한 후 유권자 효능감에 대한 측정도구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평균값 비교를 통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 IV. 유권자효능감 등에 대한 실증분석

#### 1. 설문대상자의 사회경제학적 특성

공직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있어서 전체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운데 성별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남성은 615명(49.6%), 여성은 625명(50.4%)으로 나타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확정된 선거인명부상의 실제 남성 유권자 19,129,251(49.3%), 여성 유권자 19,701,908(50.7%)과 비교할 때 비슷한 성별 분포를 가지고 있다.

연령의 경우 20대 이하는 318명(25.6%), 30대는 331명(26.7%), 40대는 293명(23.6%)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50대는 196명(15.8%)으로 다소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60대 이상은 102명(8.2%)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 응답자의 사회경제학적 특성으로 학력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45명(3.6%),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313명(25.2%)로 나타났다. 대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71.1%인 882명으로 조사되었다.

월평균 가구 총소득의 경우 100만원 미만이 36명(2.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고, 800만원 이상이 63명(5.1%)로 두 번째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소득 구간은 300만원에서 399만원으로 총 304명(24.6%)의 응답자에 이 구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만원에서 299만원 사이의 소득 구간에는 256명(20.7%)이 분포되어 있었고, 400만원에서 499만원이 213명(17.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월평균 300만원~400만원의 소득 수준을 갖는 가구는 21명(1.7%), 400만원~500만원의 소득 수준을 보이는 가구는 7명(0.6%)로 나타났다.

출신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 지역 출신의 응답자가 227명(18.4%)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대전/충청 지역 출신의 응답자가 221명(17.9%), 서울 지역 출신의 응답자가 201명(16.3%), 부산/경남/울산 지역 출신의 응답자가 197명(15.9%), 인천/경기 지역 출신의 응답자가 173명(14.0%), 대구/경북 지역 출신의 응답자가 130명(10.5%), 강원 지역 출신의 응답자가 70명(5.7%), 제주 지역 출신의 응답자가 17명(1.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거주지역에 따른 응답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현재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가운데 45.8%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 비율은 40.4%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13.8%(171명)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의 특성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사무/기술/전문직이 502명(40.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고, 전업 주부가 228명(18.4%), 무직/퇴직/기타가 208명(16.8%), 대학(원)생이 132명(10.6%)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도 자영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는 81명(6.5%), 판매/영업/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응답자는 43명(3.5%), 농업/임업/어업과 생산/기능/노무직에 종사하는 응답자는 각각 23명(1.9%)로 나타났다.

〈표 3〉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자	615	49.6
	여자	625	50.4
	<b>합 계</b>	<b>1,240</b>	<b>100.0</b>
연령	20대 이하	318	25.6
	30대	331	26.7
	40대	293	23.6

항목	구분	빈도(명)	퍼센트(%)
	50대	196	15.8
	60대 이상	102	8.2
	<b>합 계</b>	<b>1,240</b>	<b>100.0</b>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5	3.6
	고등학교 졸업 이하	313	25.2
	대학교 재학 이상	882	71.1
	<b>합 계</b>	<b>1,240</b>	<b>100.0</b>
월 소득	100만원 미만	36	2.9
	100만원~199만원	133	10.7
	200만원~299만원	256	20.7
	300만원~399만원	304	24.6
	400만원~499만원	213	17.2
	500만원~599만원	151	12.2
	600만원~799만원	82	6.6
	800만원 이상	63	5.1
	<b>합 계</b>	<b>1,238</b>	<b>100.0</b>
출신지역	서울	201	16.3
	인천/경기	173	14.0
	대전/충청	221	17.9
	광주/전라	227	18.4
	대구/경북	130	10.5
	부산/경남/울산	197	15.9
	강원	70	5.7
	제주	17	1.4
	<b>합 계</b>	<b>1,236</b>	<b>100.0</b>
거주지역	대도시	568	45.8
	중소도시	501	40.4
	읍면지역	171	13.8
	<b>합 계</b>	<b>1,240</b>	<b>100.0</b>
직업	농업/임업/어업	23	1.9
	자영업	81	6.5
	판매/영업/서비스직	43	3.5
	생산/기능/노무직	23	1.9
	사무/기술/전문직	502	40.5
	(전업)주부	228	18.4
	대학(원)생	132	10.6
	무직/퇴직/기타	208	16.8
	<b>합 계</b>	<b>1,240</b>	<b>100.0</b>

## 2. 유권자 효능감의 신뢰도 분석

먼저 측정변수들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게 되는데 Cronbach's alpha 계수는 0~1의 값을 가지며, 높을수록 바람직하나 반드시 몇 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다. 흔히 0.8~0.9 이상이면 바람직하고 0.6~0.7 이면 수용할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0.6보다 작으면 내적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이학식 2005, 188).

본 연구의 측정항목인 유권자 효능감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모두 0.6~0.7 사이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내적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 유권자의 인식차이 분석

### 1) 유권자 효능감

유권자의 효능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유권자의 투표참여 영향요인에 대한 평균값 비교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유권자 효능감에 대한 T-test와 분산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표는 정치인들에게 내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4>가 보여준다. 이 표를 보면, 성별에 따른 분석에서 t값이 1.887( $p < .1$ )로 응답자들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즉, 응답자들은 의사전달방법으로서 투표의 효과성에 대해서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의사전달방법으로서 투표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직업에 따른 분석에서 F값이 2.762( $p < .05$ )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응답자들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응답자들은 직업에 따라 의사전달방법으로서 투표의 효과성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사무/기술/전문직 종사자들이 의사전달방법으로서 투표의 효과성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반대로 생산/기능/노무직종사자들이 다른 직종에 비해 의사전달방법으로서 투표의 효과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평균값(3.69)으로 볼 때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의사전달방법으로서 투표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유권자 효능감에 대한 인식차이-1

측정문항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t)	유의확률
의사전달 방법으로서 투표의 효과성	성별	남성	615	3.74	0.995	1.887	0.059
		여성	625	3.63	1.017		
	직업	농업/임업/어업	23	3.74	0.915	2.762	0.008
		자영업	81	3.63	1.054		
		판매/영업/서비스직	43	3.53	1.202		
		생산/기능/노무직	23	3.48	1.275		
		사무/기술/전문직	502	3.83	0.892		
		(전업)주부	228	3.58	1.001		
		대학(원)생	132	3.64	1.079		
		무직/퇴직/기타	208	3.55	1.111		
	학력	중졸 이하	45	3.49	1.058	5.617	0.004
		고졸 이하	313	3.54	1.019		
		대재 이상	882	3.75	0.996		
	소득	100만원 미만	36	3.08	1.204	2.171	0.034
		200만원 미만	133	3.60	1.141		
		300만원 미만	256	3.71	1.048		
		400만원 미만	304	3.71	0.944		
		500만원 미만	213	3.71	0.935		
		600만원 미만	151	3.72	0.969		
		800만원 미만	82	3.77	0.865		
		800만원 이상	63	3.67	1.150		

학력에 따른 분석에서 F값이 5.617( $p < .05$ )로 응답자들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응답자들은 학력에 따라 의사전달방법으로서 투표의 효과성에 인식의 차이를 보였으며, 학력이 낮은 응답자보다는 학력이 높은 응답자가 의사전달방법으로서 투표의 효과성에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른 분석에서는 F값이 2.171( $p < .05$ )로 응답자들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응답자들의 월 평균 소득에 따라 의사전달방법으로서 투표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월 700만원에서 799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응답자가 의사전달방법으로서 투표의 효과성에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월 6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응답자가 의사전달방법으로서 투표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의사전달방법으로서 투표의 효과성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응답자는 월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응답자로 판명되었다.

이 외에 연령, 출신지역, 거주지역에 따른 분석에서는 의사전달방법으로서 투표의 효과성에 대한 응답자 간의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투표는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나 하나정도 기권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결과를 역코딩한 후 분석한 결과, 학력에 따른 분석에서 F값이 3.645( $p < .05$ )로 나타나 응답자들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응답자들은 학력에 따라 투표결과에 미치는 한 표의 영향력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며, 학력이 낮은 응답자들보다는 학력이 높은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투표결과에 미치는 한 표의 영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학력을 제외한 다른 분석에서는 투표결과에 미치는 한 표의 영향력에 대한 응답자 간의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평균값(3.65)을 통해서 보면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투표결과에 미치는 한 표의 영향력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권자의 심리적요인인 정치적 효능감이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한국에서의 과거 공직선거에 대해 살펴보면, 김욱(1998)은 1997년 대통령선거의 경우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 반면, 강경태(2003)는 한국정치의 전반적 민주화에 따라 민주화 보다 한 표의 가치를 자각하는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투표 참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이 과거선거와 최근선거에서의 차이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최근의 공직선거의 연구에서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투표효능감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5〉 유권자 효능감에 대한 인식차이-2

측정문항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t)	유의확률
투표결과에 대한 한표의 영향력	학력	중졸 이하	45	3.27	1.156	3.645	0.026
		고졸 이하	313	3.67	0.932		
		대재 이상	882	3.66	0.977		

셋째, “나 한사람의 참여가 지역의 바른 일꾼을 선택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성별에 따른 분석에서 t값이 -1.746(p<.1)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응답자들은 성별에 따라 투표 참여가 지역의 바른 일꾼을 선택하는데 기여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투표 참여가 지역의 바른 일꾼을 선택하는데 기여하는지 여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분석에서 F값이 3.243(p<.05)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응답자들은 연령에 따라 투표 참여가 지역의 바른 일꾼을 선택하는데 기여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며, 40대 응답자들이 투표 참여가 지역의 바른 일꾼을 선택하는데 기여하는지 여부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6> 유권자 효능감에 대한 인식차이-3

측정문항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t)	유의확률
투표 참여가 지역의 바른 일꾼을 선택하는데 기여하는지 여부	성별	남성	615	3.72	0.866	-1.746	0.081
		여성	625	3.80	0.870		
	연령	20대 이하	318	3.69	0.876	3.243	0.012
		30대	331	3.70	0.862		
		40대	293	3.91	0.888		
		50대	196	3.71	0.853		
		60대 이상	102	3.82	0.801		
	출신 지역	서울	201	3.77	0.853	2.761	0.008
		인천/경기	173	3.85	0.870		
		대전/충청	221	3.56	0.987		
		광주/전라	227	3.86	0.829		
		대구/경북	130	3.70	0.754		
		부산/경남/울산	197	3.80	0.903		
		강원	70	3.89	0.649		
제주	17	3.65	0.786				

끝으로 출신지역에 따른 분석에서 F값이 2.761( $p < .05$ )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응답자들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응답자의 출신지역에 따라 투표 참여가 지역의 바른 일꾼을 선택하는데 기여하는지 여부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강원 지역 출신의 응답자들이 투표 참여가 지역의 바른 일꾼을 선택하는데 기여하는지 여부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충청 지역 출신의 응답자들이 투표 참여가 지역의 바른 일꾼을 선택하는데 기여하는지 여부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평균값(3.76)을 통해서 볼 때,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투표 참여가 지역의 바른 일꾼을 선택하는데 기여하는지 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직업, 학력, 거주지역, 소득에 따른 분석에서는 투표 참여가 지역의 바른 일꾼을 선택하는데 기여하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자 간의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번 투표로 우리지역의 정치와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결과, 연령에 따른 분석에서 F값이 2.039( $p < .1$ )로 나타나 응답자들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응답자들은 연령에 따라 투표로 인한 지역 정치와 교육의 변화가능성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며, 40대 응답자들이 투표로 인한 지역 정치와 교육의 변화가능성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업에 따른 분석에서 F값이 2.075( $p < .01$ )로 응답자들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응답자들은 직업에 따라 투표로 인한 지역정치와 교육의 변화가능성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며, 대학(원)생들이 투표로 인한 지역정치와 교육의 변화가능성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생산/기능/노무직 응답자들이 지역정치와 교육의 변화가능성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지역에 따른 분석에서 F값이 6.072( $p < .05$ )로 응답자들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응답자들은 출신지역에 따라 투표로 인한 지역 정치와 교육의 변화가능성에 관해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기 지역 출신의 응답자들은 투표로 인한 지역 정치와 교육의 변화가능성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제주 지역 출신의 응답자들은 투표로 인한 지역 정치와 교육의 변화가능성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평균값이 3.30으로 추정된 것은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투표로 인한 지역 정치와 교육의 변화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성별, 소득, 학력, 거주지역에 따른 분석에서는 투표로 인한 지역 정치와 교육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응답자 간의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 민주국가에서는 수차례 걸쳐 경험적으로 검증(Verba and Nie, 1972; Milbrath and Goel, 1997; Wolfinger and Rosenstone, 1980)된 바 있는 사회 경제적 지위모형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대중매체에 자주 노출되며, 정치적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할 능력이 뛰어나며 결과적으로 정치적 관심과 지식을 많이 갖게 되며 이는 곧바로 정치적 효능감으로 연결되어 투표행위를 비롯한 정치 참여의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밝히고 있다(김육 1998, 202~203).

미국을 비롯한 서구 민주국가에서는 버바와 나이(Verba and Nie, 1972), 울핑거와 로젠스톤(Wolfinger and Rosenstone, 1980)등에 의하여 수차례 경험적으로 검증된바 있는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사회 경제적 지위이론이 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일부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는 고학력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정치 냉소주의가 너무 강해서 기권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유권자 효능감이 크다는 결과는 제2장 유권자 효능감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서 밝혔듯이 유권자의 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과거 성공에 대한 경험을 통해, 또한 적극적인 투표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학습과 홍보 활동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가 한번 실시하였다는 한계는 있으나 한국의 유권자 역시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이론의 모형으로 변해가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지금까지 4개의 유권자 효능감에 대한 개별 설문항목별 합산하여 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유권자의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유권자 효능감이 높은 경우에 대한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부록1의 빈도분석표에 의하여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효능감이 높은 편이며, 세대별로는 40대 연령층, 직업별로 사무/기술/전문직에 종사하는 유권자가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비교한 결과 대재 이상 즉, 고학력인 유권자일수록 효능감이 높고,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효능감이 높은 편이며,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낮은 편이다. 거주지역으로 비교해 보면 읍면지역 거주하는 유권자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유권자보다 효능감이 높으며, 월 소득 400~6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 유권자가 효능감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7> 유권자 효능감에 대한 인식차이-4

측정문항	항목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t)	유의확률
투표로 인한 지역정치와 교육의 변화가능성	연령	20대 이하	318	3.36	0.962	2.039	0.087
		30대	331	3.27	0.894		
		40대	293	3.35	0.967		
		50대	196	3.27	0.998		
		60대 이상	102	3.08	0.941		
	직업	농업/임업/어업	23	3.26	1.137	2.075	0.043
		자영업	81	3.05	1.059		
		판매/영업/서비스직	43	3.12	0.931		
		생산/기능/노무직	23	3.04	0.976		
		사무/기술/전문직	502	3.34	0.916		
		(전업)주부	228	3.36	0.882		
		대학(원)생	132	3.42	0.941		
		무직/퇴직/기타	208	3.21	1.028		
	출신 지역	서울	201	3.45	0.910	6.072	0.000
		인천/경기	173	3.50	0.846		
		대전/충청	221	3.12	0.984		
		광주/전라	227	3.45	0.927		
		대구/경북	130	3.10	0.931		
		부산/경남/울산	197	3.17	1.014		
		강원	70	3.30	0.906		
		제주	17	2.76	0.903		

### 3) 투표참여율 제고를 위한 정책의 선호도

본 연구의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유권자들은 과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의 투표율(54.5%)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투표참여율(54.5%)가 낮은 편이라고 인식하는 유권자의 비율이 55.9%, 적당하다고 인식하는 유권자의 비율이 28.7%, 낮은 편이라고 인식하는 유권자의 경우 28.7%로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참여율(54.5%)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유권자의 비율이 대체적으로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최근의 낮은 투표참여율과 관련하여 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조사대상중 응답한 1,232명의 유권자에게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비롯한 공직선거의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으로 어떤 정책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성별차이를 살펴보면 <표 8>와 같이 나타났다.

<표 8> 유권자의 투표참여율 제고를 위한 정책 선호도

구분	투표 의무감 고취를 위한 교육 강화	투표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확대	선관위의 적극적인 투표참여 홍보활동	후보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회사 등에서 철저한 투표시간 보장	전자투표, 사전투표 등 투표방법 개선	투표시간 연장	기타	사례수
계	201	379	51	140	142	242	33	44	1,232
	16.3%	30.8%	4.1%	11.4%	11.5%	19.6%	2.7%	3.6%	100%
남	84	193	21	59	74	143	12	27	613
	13.7%	31.5%	3.4%	9.6%	12.1%	23.3%	2.0%	4.4%	100%
여	117	186	30	81	68	99	21	17	619
	18.9%	30.0%	4.8%	13.1%	11.0%	16.0%	3.4%	2.7%	100%

유권자의 투표참여율 제고를 위한 정책에 대한 성별 선호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 투표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확대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투표의무감 고취를 위한 교육 강화, 세 번째는 전자투표, 사전투표 등 투표방법 개선, 후보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확대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공직선거에 있어 유권자가 투표참여에 영향요인에 대한 그동안 연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입증된 유권자 효능감에 대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사회경제학적 특성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권자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유권자의 투표참여율 제고를 위한 정책에 대한 선호도 등을 함께 조사·분석하여 향후 실시되는 공직선거에 있어 효과적인 투표참여 제고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0년 6월 2일 8개선거를 한꺼번에 실시하였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참여 적극성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위해 유권자 개인의 특성과 인식에 대한 미시적인 연구로서 유권자 효능감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을 통해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등 사회경제학적 특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투표참여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밝혀진 유권자의 효능감에 대한 인식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모든 설문에 일관된 인식을 나타내기 보다는 설문의 종류에 따라 효과적인 의사전달 방법으로 투표의 필요성 인식, 내 한표의 가치에 대한 기대, 지역 참 일꾼의 선택하는 자신감, 투표참여로 지방정치와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 등 4가지 설문과 유권자의 사회경제학적 특성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투표참여율이 높은 읍면지역의 거주 유권자의 효능감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권자의 투표참여율 제고를 위한 정책에 대한 선호도는 첫 번째 투표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확대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투표 의무감 고취를 위한 교육 강화, 세 번째는 전자투표, 사전투표 등 투표방법 개선, 네 번째는 후보자등에 대한 정보제공의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치관계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유권자 효능감에 대한 전국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경험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유권자의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등 집단 특성에 따른 차이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검증하여 입증하였다.

지금까지의 유권자의 투표참여 인식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유권자의 투표참여 적극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민적 의무감과 선거운동 관심도, 투표 편의성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유권자 효능감의 고취를 위한 민주시민정치교육과 세대별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적극성을 보이는 요인으로 “자신의 투표참여가 정치와 교육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주관적 판단”으로 유권자 효능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향후 투표참여 행태에 대한 연구방향과 전반적인 선거관리에 있어 큰 흐름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유권자의 투표참여율 제고를 위한 정책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투표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확대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투표 의무감 고취를 위한 교육 강화, 세 번째는 전자투표, 사전투표 등 투표방법 개선, 후보자등에 대한 정보제공의 확대의 필요성 순으로 정책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의 투표참여율 제고를 위한 정책은 단시간에 이루어 내기 보다는 보다 장기

적인 측면에서 발전되어야 하는 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이 함께할 수 있도록 선진 정치 환경 조성, 유권자의 정보취득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매니페스토형 정책선거 추진, 정치자금의 투명한 수입과 지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집단에 대한 종합적 의견 수렴을 통해 선거와 관련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순응성을 높여가려는 시도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대한 연구를 “자신의 투표참여가 정치와 교육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주관적 판단”으로서 유권자 효능감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유권자 효능감이 공직선거에 있어서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투표참여율 제고를 위한 정책의 선호도 등을 전국적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권자의 심리적 변화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나 유권자 효능감을 제5회 동시지방선거가 종료된 후 1회 측정하여 분석함에 따라 효능감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의 변화 등은 확인하지 못하였고, 유권자 효능감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이나 홍보 방법 등에 대한 연구와 연결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공직선거의 유권자 의식조사를 실시할 때 유권자의 효능감에 대한 설문을 포함하여 그 변화의 추이를 분석을 통해 효능감의 향상을 위한 정책과 연계할 수 있다면 투표참여율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강경근. 1990. “한국에서의 국민주권론의 위상”. 『고시계』 90-3. 61~76.
- 강경태. 2003. “한국 대통령선거 어떤 유권자가 참여하나?: 선거관심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7-1. 91-111.
- 강경태. 2003. “16대 한국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참여 및 불참분석”. 『국제정치연구』 6-2. 57-81.
- 강경태. 2008. “5·31 지방선거 투표참여도 분석.” 『한국시민윤리학회』, 21(1): 223-244.
- 김왕식. 2008. “제17대 대선에서의 투표참여요인.”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1-2. 135-151.
- 김 욱. 1998. 『한국의 선거Ⅱ: 투표참여와 기권-누가, 왜 투표하는가?』. 이남영(편). 서울: 푸른길.
- 김 욱. 1999. 『한국의 선거Ⅲ: 거주지규모와 연령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조중빈(편). 서울: 푸른길.
- 김 욱. 2002. 『한국의 선거Ⅳ』. 서울: 푸른길.
- 김재전. 2008. 한국의 지방선거와 유권자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이석. 2005. “유권자의 정당 및 후보자선택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찬욱. 1993. “유권자의 선거관심도, 후보인지능력과 투표참여의사”. 『한국정치학회보』 26-3. 172.
- 서상국. 2009. “국회의원재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2009년 경주시의사례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남영. 1993. 『한국의 선거 I: 투표참여와 기권: 제14대 국회의원선거분석』. 이남영(편). 서울: 나남.
- 이남영. 2002. 『사상』 가을호(통권 제54호), 4-304
- 이명행. 2011. “공직선거의 투표참여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철. 2007. “정치문화와 투표행위: 5·31지방선거에 나타난 인지적, 정서적, 평가적 정향과 투표참여”. 『한국과 국제정치』 23-2. 103.
- 이학식. 2005. 『마케팅조사』. 제2판. 경기도: 법문사.
- 이찬희. 2002. “한국 유권자의 투표참여 행태에 관한 연구: 인지과정이론을 통한 기권행태 분석”. 숙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병만. 2005. 『한국의 선거와 한국인의 정치행태』. 서울: 도서출판 인간사향.
- 조재목. 2005. “세대와 정치심리요인 및 투표행동간의 인과관계 분석: 제17대 총선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성대. 2006. “투표참여와 기권의 정치학: 합리적 선택 이론의 수리모형과 제17대 총선”. 『한국정치학회보』 40-2. 53-7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2~2010. 『각종 공직선거의 투표율분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88~2010. 『각종 공직선거의 유권자의식조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5~2010. 『제1회~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9. 『대한민국 선거사(4집~6집)』.
- 장원호. 2003. “교육수준이 선거기권에 미치는 영향: 다운즈의 합리적 선택론을 중심으로”. 『조사연구』 4-2. 25.

## 2. 국외문헌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1978. The self system in reciprocal determinism. *American Psychologist*, 33(4): 344~358.
- Bandur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s and action: A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 Bandura,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2): 117~148.
- Bandur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W. H. Freeman and Company.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147
- Downs, A.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Row.
- Riker, W.H. & Ordeshook, P.C. 1968. A theory of calculus of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2(1). 25~43.
- Sindecy, Verba., & Norman H. Nie.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Harper & Row.
- Wolfinger, Raymond E. and Steven J. Rosen stone. 1980. *Who Vot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3. 기 타

- 조선일보 2010.12.20. (<http://kr.search.yahoo.com>-검색일 2010.8.26.)
- 세계일보 2010.5.9. (<http://www.segye.com>-검색일 2010.8.26.)

### 〈국문초록〉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으나 민주화 이후 공직선거에서의 투표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참여율이 54.5%로서 이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투표참여 관련 연구는 누가, 어떤 이유로 투표참여를 하는지에 대해 각종 공직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유권자의 투표참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 결과 시민적 의무감, 선거운동 관심도, 투표의 편의성, 유권자 효능감 등이 조절효과를 발휘하여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권자가 투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유권자의 투표참여 영향요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학술자료, 선거총람 등의 분석을 통해 2010. 6. 2. 실시한 8개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유권자 효능감에 대한 인식과 투표참여율 제고를 위한 정책의 선호도등을 분석하여 향후 정치관계법의 개정과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지난 2010년 6월 2일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써 공간적 범위는 전국 16개 시·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내용적 범위는 2010년 7월 16일~31일 까지 전국의 1,270명에게 어떤 유권자가 투표참여의 적극성을 갖는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던 자료중 유권자 효능감에 관한 1,240명의 설문자료에 의하여 빈도분석, T-test,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이번 연구결과 유권자 효능감의 경우 남성, 고학력자, 40대 연령층 등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권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첫째,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민주시민정치교육의 법제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둘째, 정치관계법의 개정의 개정을 통해 매니페스토형 정책선거를 활성화하여 후보자와 유권자간에 공정·참여·소통이 가능한 선거환경을 만들어 감으로써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sup>3)</sup>

**주제어** : 투표참여 적극성, 시민적 의무감, 선거운동 관심도, 투표 편의성, 유권자 효능감, 공직선거

voter participation, civic responsibility, interest in electoral campaign, voter convenience, voter self-efficacy, elections for public office

3) 본 연구의 설문 통계자료는 박사학위 논문 “공직선거의 투표참여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0. 7. 16~31까지 수집한 설문자료로서 세부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던 유권자 효능감과 투표참여 제고를 위한 정책 선호도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부록 1

유권자 효능감의 측정결과 비교분석표(약-중-강)

구 분	효능감(약함)	효능감(중간)	효능감(높음)	사 례 수
남	12	200	403	615
	<b>2.0%</b>	<b>32.5%</b>	<b>65.5%</b>	<b>100.0%</b>
여	10	221	394	625
	1.6%	35.4%	63.0%	100.0%
<b>성별</b>	<b>22</b>	<b>421</b>	<b>797</b>	<b>1,240</b>
	<b>1.8%</b>	<b>34.0%</b>	<b>64.3%</b>	<b>100.0%</b>
20대 이하	9	108	201	318
	2.8%	34.0%	63.2%	100.0%
30대	2	122	207	331
	0.6%	36.9%	62.5%	100.0%
40대	8	88	197	293
	<b>2.7%</b>	<b>30.0%</b>	<b>67.2%</b>	<b>100.0%</b>
50대	3	63	130	196
	1.5%	32.1%	66.3%	100.0%
60대 이상	0	40	62	102
	0.0%	39.2%	60.8%	100.0%
<b>연령별</b>	<b>22</b>	<b>421</b>	<b>797</b>	<b>1,240</b>
	<b>1.8%</b>	<b>34.0%</b>	<b>64.3%</b>	<b>100.0%</b>
농업/임업/어업	1	8	14	23
	4.3%	34.8%	60.9%	100.0%
자영업	2	35	44	81
	2.5%	43.2%	54.3%	100.0%
판매/영업/서비스직	2	20	21	43
	4.7%	46.5%	48.8%	100.0%
생산/기능/노무직	0	11	12	23
	0.0%	47.8%	52.2%	100.0%
사무/기술/전문직	6	142	354	502
	<b>1.2%</b>	<b>28.3%</b>	<b>70.5%</b>	<b>100.0%</b>
전업주부	2	81	145	228
	0.9%	35.5%	63.6%	100.0%
대학(원)생	4	42	86	132
	3.0%	31.8%	65.2%	100.0%



구 분	효능감(약함)	효능감(중간)	효능감(높음)	사 례 수
무직/퇴직/기타	5	82	121	208
	2.4%	39.4%	58.2%	100.0%
<b>직업별</b>	<b>22</b>	<b>421</b>	<b>797</b>	<b>1,240</b>
	<b>1.8%</b>	<b>34.0%</b>	<b>64.3%</b>	<b>100.0%</b>
중졸 이하	0	19	26	45
	0.0%	42.2%	57.8%	100.0%
고졸	4	124	185	313
	1.3%	39.6%	59.1%	100.0%
대재 이상	18	278	586	882
	<b>2.0%</b>	<b>31.5%</b>	<b>66.4%</b>	<b>100.0%</b>
<b>학력별</b>	<b>22</b>	<b>421</b>	<b>797</b>	<b>1,240</b>
	<b>1.8%</b>	<b>34.0%</b>	<b>64.3%</b>	<b>100.0%</b>
특별시/광역시	12	194	362	568
	2.1%	34.2%	63.7%	100.0%
중소도시	6	171	324	501
	1.2%	34.1%	64.7%	100.0%
읍면	4	56	111	171
	<b>2.3%</b>	<b>32.7%</b>	<b>64.9%</b>	<b>100.0%</b>
<b>지역별</b>	<b>22</b>	<b>421</b>	<b>797</b>	<b>1,240</b>
	<b>1.8%</b>	<b>34.0%</b>	<b>64.3%</b>	<b>100.0%</b>
서울	4	71	181	256
	<b>1.6%</b>	<b>27.7%</b>	<b>70.7%</b>	<b>100.0%</b>
인천/경기	6	96	225	327
	1.8%	29.4%	68.8%	100.0%
대전/충남/충북	4	47	77	128
	3.1%	36.7%	60.2%	100.0%
광주/전남/전북	1	46	95	142
	0.7%	32.4%	66.9%	100.0%
대구/경북	2	65	72	139
	1.4%	46.8%	51.8%	100.0%
부산/울산/경남	5	73	109	187
	2.7%	39.0%	58.3%	100.0%
강원	0	17	31	48
	0.0%	35.4%	64.6%	100.0%

구 분	효능감(약함)	효능감(중간)	효능감(높음)	사 례 수
제주	0	6	7	13
	0.0%	46.2%	53.8%	100.0%
거주지역	<b>22</b>	<b>421</b>	<b>797</b>	<b>1,240</b>
	<b>1.8%</b>	<b>34.0%</b>	<b>64.3%</b>	<b>100.0%</b>
200 미만	5	72	92	169
	3.0%	42.6%	54.4%	100.0%
200~400 미만	9	187	364	560
	1.6%	33.4%	65.0%	100.0%
400~600 미만	3	118	243	364
	<b>0.8%</b>	<b>32.4%</b>	<b>66.8%</b>	<b>100.0%</b>
600 이상	5	44	96	145
	3.4%	30.3%	66.2%	100.0%
소득별	<b>22</b>	<b>421</b>	<b>795</b>	<b>1,238</b>
	<b>1.8%</b>	<b>34.0%</b>	<b>64.2%</b>	<b>100.0%</b>
서울	5	57	139	201
	<b>2.5%</b>	<b>28.4%</b>	<b>69.2%</b>	<b>100.0%</b>
인천/경기	2	43	128	173
	1.2%	24.9%	74.0%	100.0%
대전/충남/충북	5	59	93	157
	3.2%	37.6%	59.2%	100.0%
광주/전남/전북	0	71	156	227
	0.0%	31.3%	68.7%	100.0%
대구/경북	2	86	106	194
	1.0%	44.3%	54.6%	100.0%
부산/울산/경남	7	68	122	197
	3.6%	34.5%	61.9%	100.0%
강원	1	25	44	70
	1.4%	35.7%	62.9%	100.0%
제주	0	9	8	17
	0.0%	52.9%	47.1%	100.0%
출신지별	<b>22</b>	<b>418</b>	<b>796</b>	<b>1,236</b>
	<b>1.8%</b>	<b>33.8%</b>	<b>64.4%</b>	<b>100.0%</b>